“지속 가능해 더 찬란한 고려불교”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 國博 ‘대고려展’ 명사 강연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고려는 이웃국가들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개방적이고, 성찰을 중시했습니다. 기술과 불교적 가르침을 흡수해 문화를 재해석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려에 대한 후세대의 비판은 진부합니다.”

후삼국 통일 이후 474년간 한반도를 지배한 고려시대에 꽃피운 불교문화가 현대사회서 지속가능한 문화로 남기 위해 그 가치를 조명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불교사 연구의 세계적 석학인 루이스 랭카스터 UC버클리 명예교수는 12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서 기획특별전 ‘대고려 918 · 2018’과 함께 마련된 명사 초청 국제심포지엄서 불교문화가 고려시대 발달하게 된 요인 등을 조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심포지엄은 ‘고려 건국 1100주년 통합과 화해의 시대, 문화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랭카스터 교수는 고려시대를 ‘불교 영향으로 한반도 삶의 수준이 고양된 시기’로 규정한 뒤 고려청자와 불교와의 인연을 중국 5대10국 시대 ‘오월(吳越)’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오월은 당에서 송으로 이어지는 한족 영토를 나눠가진 10국 중 하나로, 불교순례자들이 양쯔강을 따라 오월의 항구를 목적지로 순례했다. 이후 오월은 중국불교성지이자 동아시아 불교의 구심점으로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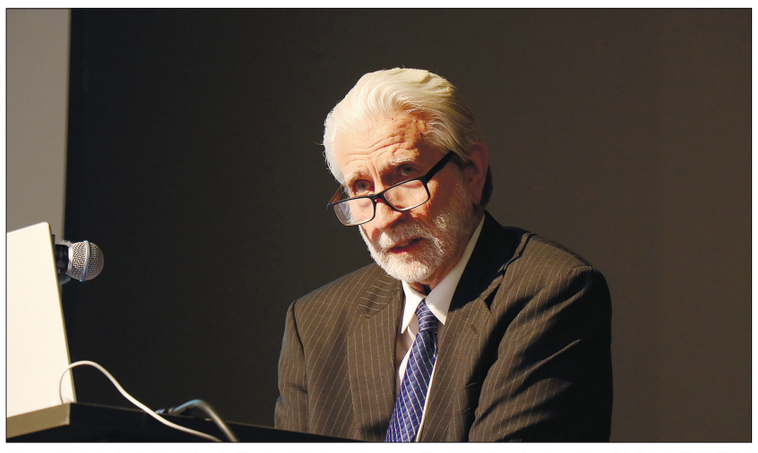
특히 오월은 풍부한 점토자원을 바탕으로 수백여 개의 가마를 만들어 자기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오월은 수준 높은 자기와 유약을 만들어냈으며, 청자의 본국이 됐다. 하지만 송나라의 침공으로 인해 도공들이 배를 타고 한반도와 일본, 태국 등으로 피난했다. 도공들은 순례자와 무역상들이 이용하던 항로를 통해 한반도 전남 강진 지역에 정착했다. 당시 강진은 오월과 비슷한 지질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도공들은 호남지역 불자들과 교감하기 시작했다는 게 랭카스터 교수 설명이다.

랭카스터 교수는 “오월에서 이어진 항로는 한반도 남단 끝자락에 닿았다. 여기서 도공들은 자신들의 본국과 비슷한 토양을 찾아냈다”며 “불교를 통해 지역에서 환대받으며 정착한 도공들에 의해 고려청자 전통이 확립되고, 현대사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재가 됐다”고 강조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이어 청자와 불교경전 사본이 고려 주변국과의 선린을 위한 선물로 활용됐음을 주장했다. 그는 “목판인쇄술이 발달한 북송이 11세기 중국 불교대장경 사본을 고려에 보내고, 이후로도 다양한 사본들이 넘어왔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물을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며 “결국 송나라는 문화강국으로 등극했다. 고려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송나라를 뛰어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쇄판을 제작했다. 하지만 몽골 침략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그럼에도 고려가 재차 심혈을 기울여 13세기 제작한 국보 제32호 해인사 대장경판을 높이 평가하면서 “송 · 금 · 요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지고 오직 고려만이 남긴 가장 오래된 불교의 목판경전이 전해진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랭카스터 교수는 “도자기를 비롯한 각종 유물과 불화 등은 고려의 예술 · 종교 · 상업 · 정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특히 하나의 민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다”며 “대고려전이 고려국과 고려의 종교, 고려의 세계화를 바라보는 렌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려의 문화가 지속가능한 문화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불교사 분야의 세계 석학인 루이스 랭카스터 UC버클리 명예교수가 12월 3일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대고려전’ 기념 명사초청 국제심포지엄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오월 도공 전남 강진 피신
호남 불자들과 교감 나눠
고려청자와 불교 인연 소개
“불교문화, 고려 이해 도와”

문화치유명상과 대행선 응용방안은

대행선연구원 14일 제2회 계절발표회

대행선과 문화치유명상 응용방안 등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서 제2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대행 선사상의 문화치유명상 응용방안 연구’와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분황 원효의 일심과 묘공 대행의 한마음’이 각각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심준보(금강대), 문진건(동국대), 장진영(원광대), 이석환(대행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한편, 대행선연구원은 전문연구자를 초청해 관련 연구를 발표하는 ‘계절 발표회’를 추진하고 있다. 계절발표회는 매년 3 · 6 · 9 · 12월에 열리며, 대행선과 불교학 전반 관련 연구 논문이 각 1편 씩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 간화선 수행 전통 조명

종학연구소, 14일 국제대회

동아시아에서의 간화선 수행 전통을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 교내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의 간화선 수행과 시대적 변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과 대만, 일본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송 · 원 대의 간화선(츠치야 타이스케, 니가타대) △명 · 청 대의 간화선(리아오 자오형, 대만중앙연구원) △고려 말의 간화선(자현 스님, 중앙승가대) △조선 초의 간화선(황금연, 동국대) △무로마치 시대의 간화선 (디디에 다방, 일본국문학연구자료관) 등이 발표된다. △에도시대의 간화선(오바마 세이코, 오차노미즈 여대) 등이 발표된다.

동국대 종학연구소는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의 송 · 원대, 명 · 청대, 한국의 고려 말, 조선 초, 그리고 일본의 무로마치 시대, 에도 시대라고 하는 특정한 시기에 간화선 수행이 어떤 변천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겪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의 동참을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석존 이후 밀교까지 인도불교사 망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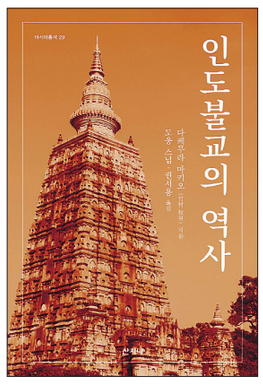
주목! 학술서 〈인도불교의 역사〉

인도 부다가야에는 지금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리수가 있고 나무 아래 큰 석탑 안쪽에 금강보좌가 놓여 있다. 여전히 많은 불교신자들이 이곳 사원을 방문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긴다. 그곳에서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사찰도, 불상도 없다. 그렇다면 불교는 최초 출현 이후 어떻게 전개돼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은 걸까?

일본의 불교학자 다케무라 마키오의 〈인도불교의 역사〉는 불교가 시작된 인도에서 불교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사상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조명한다.

이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부터 입멸 후 부파불교의 전개, 대승불교의 출현, 공의 논리, 유식의 체계 등 인도불교 사상사를 정리하고 불교의 출현과 교리, 분파의 전개를 상세히 설명한다.

특히 대승불교의 출현과 관련 사상의 전개는 눈여겨 볼만 하다. 저자는 대승불교의 출현을 ‘불교의 종교개혁’이라고 평가한다.



부파 · 대승 · 공 · 유식사상 등
인도불교 사상 전개 살펴
일본서 17쇄 이어진 명저

기존의 불교가 전문화, 고립화되고 민중과 멀어지면서 이에 반기를 든 대승불교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시원을 새로운 대승경전을 전하는 법사(法師)에게서 찾는다. 법사의 어원은 ‘다르마 바나카’인데, 바나카는 일종의 예인(藝人)으로 한국과 일본에서의 권진성(勸進聖) · 염불성(念佛聖)과 유사했을 것으로 저자는 추정한다. 이들은 정규 출가자가 아니었고, 주변인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은 “민중의 마음 주름을 전하는” 대승경전을 설하며 유행을 거듭했다.

서기 기원 전후에 출현한 새로운 불교로 문학적으로 뛰어난 경전을 많이 산출하고 공의 철학이나 유식의 철학도 체계화했다. 7~8세기 이후의 인도에서는 대승불교를 계승하면서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불의 방법론에서 독자적인 주장을 하는 밀교가 번성하게 된다.

책에서는 대승불교의 출현과 함께 대승불교의 경전인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무량수경〉을 소개하고 각 경전이 가지는 특징들을 알기 쉽게 풀이한다.

저자인 다케무라 마키오는 일본의 유식학자로 현재 도요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도불교의 역사〉는 그가 2004년 발간한 연구서로 현재 일본에선 17쇄까지 찍은 명저로 평가받고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와 맑시즘 관계 고찰한다

한국불교학회, 12월 15일 추계학술대회

화이트헤드 · 신라 구법승 등
자유주제 발표 5편도 눈길

칼 맑스(Karl Marx, 1818~1883, 사진) 탄생 200주년이 되는 올해 마지막에 불교와 맑시즘의 상관 관계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12월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와 Marxism’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와 맑시즘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 4명의 발제가 이어진다.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의 저자인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포스트휴먼시대의 대안으로서 붓다와 마르크스의 대화’를 발표하며, 소설 〈디어 맑스〉를 내놓은 손석춘 건국대 교수는 ‘마르크스주의 종교 비판과 불교의 사회인식’을 소개한다.

불교사회학자인 유승무 중앙대 교수는 ‘맑스, 루만 그리고 붓다- 사회적인 것의 세 가지 관찰 형식을 중심으로’를, 철학자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연기법과 역사유물론- 외부성의 사유’를 각각 발표한다.



함께 발표되는 자유주제의 논문들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화이트 헤드의 불교 인식을 다룬 박수영(동국대)의 발표와 인도네시아에서 병사한 신라 구법승 2명의 여정과 배경을 다루는 김영수 한 · 인니친선협회 사무총장의 발표는 눈길을 끈다.

김성철 한국불교학회장은 “올해가 칼 맑스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학술대회의 주제로 삼았다”면서 “불교적 사회참여를 모색할 때, 맑시즘은 반드시 넘어야 할 하나의 산이다. 불교와 맑시즘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학자들의 논의에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九龍 의 소원...

- 사찰의 모든 장소 장식 가능, 분수 가능
- 소원당(소원지, 소원패등) 주작품
- 작품 소장사찰 : 여수 향일암, 강화보문사 등
- 크기 : 4,200(가로) × 1,000(세로) × 1,300(높이)mm
- 가격 : 상담 후 결정

기획불사상담문의
승원아트조형 010-9195-1044

네이버 : 승원아트조형

